



실크로드 거쳐 유럽으로, 그림책 버스 '뚜뚜' 타고 볼로냐아동도서전 갑니다

그림책버스 '뚜뚜' 와 함께 어린이 독서문화 전도사로 나선 조준영 씨

매주 화요일, 경기도 부천 중앙공원에는 아주 특별한 버스 한 대가 찾아온다. 버스외관에는 울창한 숲과 사자, 호랑이, 여우, 생쥐 등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이 알록달록 그려져 있고, 안에 들어서면 1,200여 권의 그림책이 뽁뽁하게 꽂혀 있다. 두 눈을 반짝이며 버스에 탄 어린이들을 무한한 상상의 나라로 실어 나르는 이 버스의 이름은 바로 '뚜뚜'.

어린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이

같은 버스도서관을 탄생시킨 이는 그림책 기획자 조준영(40) 씨다. 사진을 전공한 조씨가 그림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0년 전. 당시 네 살이던 딸에게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다. 이웃집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림책 슬라이드 상영을 했더니 아이들은 물론 엄마들도 매우 좋아했다. 이후 조씨는 아파트 거실을 슬라이드 극장으로 만들었다.

"주변 엄마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가정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이사를 다닐 때마다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번거로웠어요. 또 지역적 한계에도 부딪혔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도서관이었다. 개인이 선뜻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도, 조씨는 2,000만 원을 들여 33인승 버스를 덜컥 구입했다. 내부의자를 모두 폐

어낸 뒤 책꽂이를 만들고 가정도서관 시절 모은 그림책 500여 권을 실었다. 바닥에는 장판을 깔아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1층 대형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식으로 버스도서관이 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다. 허가도 받아야 했고 그림책버스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들도 찾아야 했다. 기존에는 없던 허가 조항까지 새로 만들어가며 도서관버스로 허가를 받고, 그림책버스를 도와줄 그림책 작가들을 만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그림책버스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다.

“그림책버스가 아이들에게 친근한 친구이자 생명력 있는 캐릭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뚜뚜’라는 이름을 붙여줬지요. ‘뚜뚜야, 안녕?’ ‘와, 뚜뚜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며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어린이들에게 뚜뚜는 이미 ‘꼬마자동차 붐붐’이나, ‘아기공룡 둘리’처럼 친근한 존재다. 다음카페cafe.daum.net/ddoddbus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뚜뚜 생일은 언제냐?”고 궁금해하는 어린이부터 그림책버스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도 있다. 친구네 집을 드나들 듯 스스럼없이 뚜뚜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고운 빛깔과 정겨운 캐릭터가 그려진 버스 외관에 이끌려 버스에 탄 아이들은 조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책꽂이에 꽂힌 그림책을 자유롭게 꺼내 읽는다. 버스 창문에 커튼을 치면 조그만 슬라이드 극장으로 변한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슬라이드에 몰두하고 나면 버스 밖에서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은 그림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찰흙을 빚거나 그림을 그린다. 이처럼 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슬라이드 동화상영, 그림 그리기, 바깥놀이 등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즐기는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조씨는

“아이들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동화책 기획자인 그는 《산골총각》, 북한 그림동화책 《령리한 너구리》, 《빨강 나무》와 같은 그림책을 기획한 데 이어 얼마 전 직접 동화를 쓰기도 했다.

“그림책버스 뚜뚜를 주인공으로 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던 버스가 어느 날 고장으로 멈춰서고 폐차 지경에 이르지만, 아이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버스도서관이 되어 아이들 곁에 남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씨는 그림책버스를 통해 아이와 부모, 그리고 이웃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작은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버스도서관이 이웃간의 정을 되살리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는 그는 전국 각 지역의 공원, 광장, 거리에서 전시, 공연, 문화체험행사를 벌임으로써 ‘공원 도서관 만들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것이 ‘2004 찾아가는 그림책 한마당’ 운동. 이미 제주도에 다녀왔고 진해, 대구 등지를 거쳐 6월에는 임진각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매주 월요일이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탈북 어린이 공부방을 방문한다. 그림책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받을지 모르는 소외감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다. 그 밖에도 외국인노동자 자녀, 장애아, 저소득층가정 자녀, 낙도어린이처럼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조씨에게 그림책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웃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책’이다. 그림책버스를 통해 함께 누리는 문화를 가꾸고 싶어 하는 것도, 그림책이 지닌 그러한 가능성 때문이다.

“마을마다 공원마다 그림책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책의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자는 게 그림책버스의 목적입니다. 어린이 독서문화와 공동체 문화라는 공공성을 잃지 않은 버스도서관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지요.”

지난 달 조씨는 코오롱 오운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정牛汀 선행상 본상을 수상했다. 뚜뚜가 국내 첫 버스도서관인 만큼,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는 조씨. 그런 그와 그림책버스 뚜뚜가 하나씩 이루어갈 특별한 계획 중 하나는, 2005년 볼로냐아동도서관전에 참가하는 것이다.

“중국 실크로드와 유럽을 거쳐 뚜뚜를 타고 갈 거예요.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림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그림책버스 뚜뚜를 통해 버스도서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돌아올 겁니다.”

녹록치 않은 여정이겠지만 그림책버스 뚜뚜와 함께 할 그 길엔 희망이 가득하다. 어린이들의 발길이 닿는 공원과 공터마다, 어린이들을 꿈과 상상의 세계로 실어줄 ‘뚜뚜’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이들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므로. **출판**

취재 류은영 (자유기고가)·사진 박신우 기자

